

◆ EKN, 말레이시아 통신 프로젝트에 현지통화 표시 채무보증 제공

스웨덴의 수출신용기관인 EKN은 최근 말레이시아 3위의 통신사업자인 Digi.com (Digi Telecommunication Sdn. Bhd.) 社の 이동통신망 확장사업에 10억 말레이시아 링기트(2억 5,500만 달러 상당) 규모의 현지통화 표시 채무보증을 제공하였다. 그 동안 국제상업은행들이 링기트貨 표시 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현지 채권시장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왔음을 돌이켜보면, 이번 보증지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지통화표시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은 이미 영국의 ECGD가 'Local Currency Financing Scheme'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원 조건은 OECD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수입국의 현지은행이 차주에게 제공하는 구매자신용방식의 대출에 대하여 수출신용기관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리조건은 고정금리이며 이차보전은 없고 'Pure Cover' 형식으로만 운영된다. EDGD가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시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으로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동남아시아 수입자들의 환

율변동위험을 경감시켜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수출경쟁력도 높이기 위해서이다.

금번 보증계약은 EKN 최초의 말레이시아 링기트貨 표시 보증거래로, EKN은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장이 홍콩,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차주인 Digi.com社가 수익과 부채의 표시통화를 일치시켜 통화위험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건 보증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본건의 총사업비는 17억 링기트(4억 3,000만 달러)이며, 소요자금은 은행차입 10억 링기트 및 자체 자금 7억 링기트로 각각 조달될 예정이다. 은행차입은 EKN 채무보증 조건의 국제 신디케이션인 EKN Tranche(7억 링기트)와 EKN 채무보증 이 없는 말레이시아의 현지은행인 Clean Tranche(3억 링기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번 거래에는 해외주선은행으로 Credit Agricole Indosuez, IntesaBci, JP Morgan Chase, Societe Generale 등과 현지주선은행으로 Arab Malaysian Merchant Bank, 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 RHB Bank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 금융조달의 특징은 Handelsbanken, Bank of Nova Scotia, Nordia, Bank

〈표〉 금융조건 개요

차 주	Digi.Com Berhad
사업목적	이동통신 네트워크 확장
총사업비용	17억 링기트
Arrangers (EKN Tranche)	Credit Agricole Indosuez, IntesaBci, JP Morgan, SG
Arrangers (Clean Tranche)	Arab Malaysian Merchant Bank, 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 RHB Bank
만 기	EKN Tranche: 6.5 년 (7억 링기트) Clean Tranche: 7 년 (3억 링기트)
상환방식	EKN Tranche: 매6월 정기균등분할 상환 Clean Tranche: 거치기간 2년, 5년간 상환
법률자문사	Clifford Chance (International), Sheran Delamore (local)

of East Asia, Fortis, Natexis 등 EKN Tranche에 속하는 국제상업은행들이 대주(lender)가 아닌 보증인(guarantor)으로 참여하면서, 말레이시아의 현지 은행들이 신용도가 최소한 A등급인 국제상업은행들의 지급보증서에 근거하여 차주사인 Digi.com社에 대한 고정금리부 대출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의 거의 모든 상업은행들은 이미 자국의 통신 부문에 대한 여신잔액이 과도한 상태인데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Digi.com社에 대한 여신한도를 제한하면서 직접 추가신용을 공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상업은행의 지급보증서가 차주사에 대한 추가여신 제공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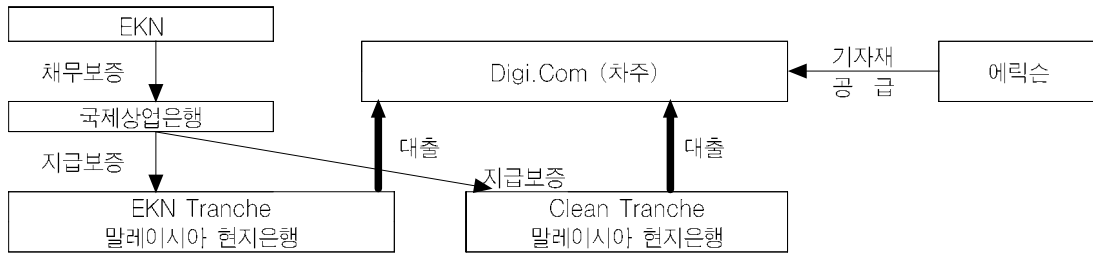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 거래가 통신사업에 대한 제한소구(limited-recourse)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추진된 통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한소구 방식의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은 증설 네트워크의 규모가 Digi.com社의 기존 네트워크 규모를

능가하여 독립적인 현금흐름 및 위험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제한소구 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Digi.com社의 대주주인 노르웨이의 Telenor社가 지난 2001년 9월 기준으로 33% 수준이던 지분율을 최근 말레이시아 법규상 최고치인 61%로 높였는데, 이는 아시아 통신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단일투자로 차주의 신용도 제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이번 거래에 대한 국제상업은행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의 3개 현지은행들도 신디케이션 형식이 아닌 개별대출 형식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유동성은 5년 이상의 만기조건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동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인 말레이시아 회사채 만기보다 긴 6.5~7년의 대출만기가 적용되었다. 한편, 채권보전(security package)에 있어 현금흐름보증확약(cash flow deficiency support)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소지분보유조항(minimum ownership covenant)을 대

<그림>

금융구조



신 포함하고 있다. 보증수수료는 EKN 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anche의 경우 만기 6.5년에 100bp를,
Clean Tranche에 대하여는 150~200bp

【金 暎 起】